

-포천 & 세종-청주고속도로 건설사업 신설사업 인공지명(案) 건의(5次)

1.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공공선이 하는 일은 시민들의 삶에 질과 세종시 미래 확장·발전에 결정적임을 강조드리며, 세종시가 잘 되어야 합니다.
2. 세종-포천고속도로(세종-안성 구간) 신설사업은 당초 2026년 준공 목표 였으나, 2025.02.25.(화) 09:50분경 청용천교 붕괴 10여명 사상사고로 2027년 준공 예정인 바, 연서면 기룡리 신림, 자룡 마을은 산 급경사 절개지와 터널 등 붕괴 위험이 산재한 구간으로, 앞으로 게릴라성 여름 폭풍 장마가 2번 남아 있어 절개지 붕괴사고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시민들 여론이 심각한 바,
3. 이에, 동 고속도로 준공시점에 터널 및 휴게소, 분기점, 나들목(IC) 등 인공지명 명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문서로 세종시민 의견을 종합하고, '자연·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' 제4조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바, 설계도상 가칭 '장군터널은 연서터널, 연기휴게소는 세종휴게소로 명명해 줄 것을 건의드렸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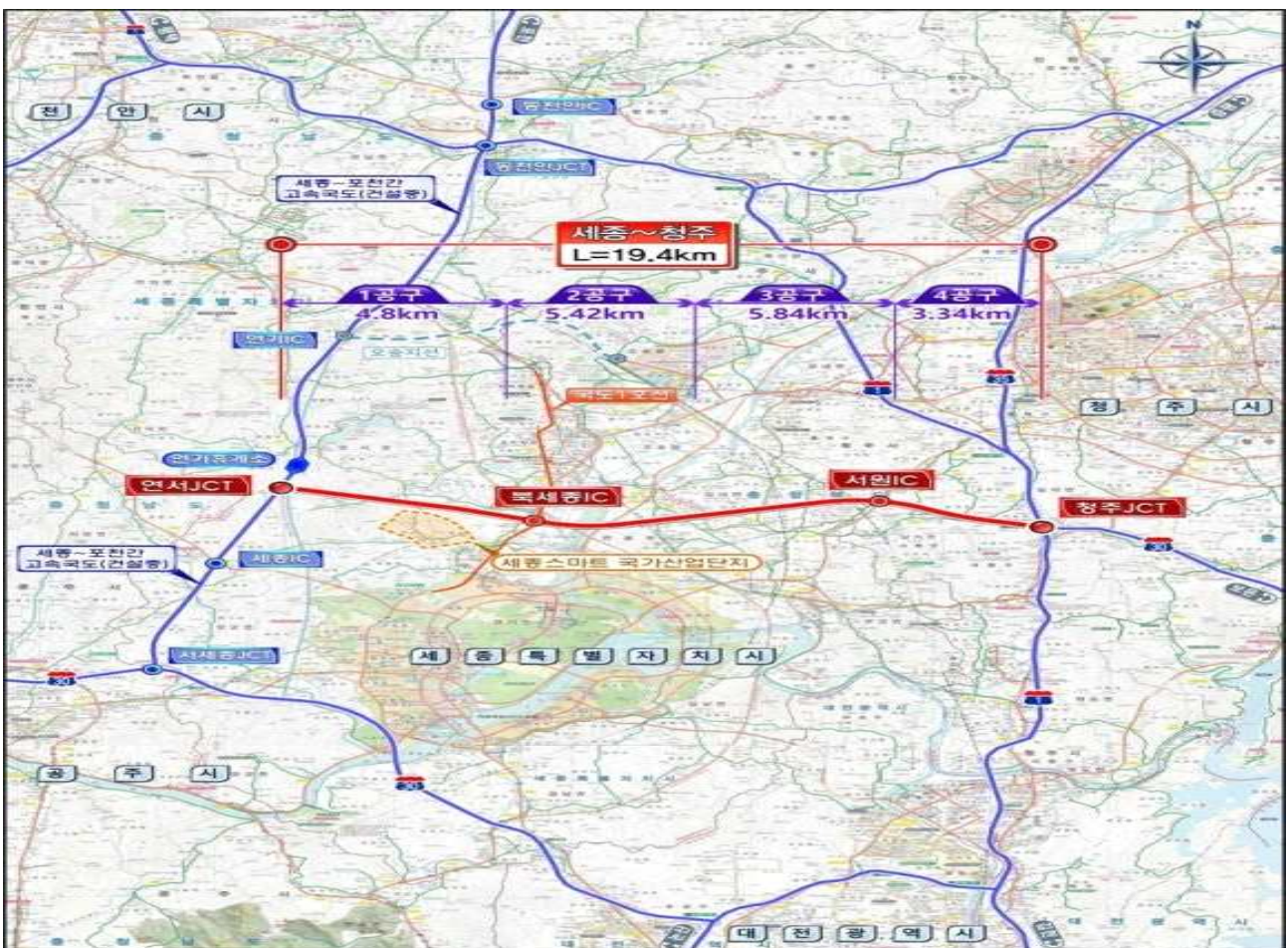
[**답변, 도로과, 시민의창 접수번호 123999, 2026.01.07.**] '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 명칭은 공사 중 사용하는 가칭이며, 향후 개통 시점에 맞춰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을 안내드립니다.'(工夫)

4. 세종시장 답변을 근거로 한국도로공사에 인공지명 명명 건의 드린 바, **[한국도로공사사장 답변]** '세종-포천고속도로 신설사업 인공지명(가칭 장군터널⇒연서터널, 가칭 연기휴게소⇒세종휴게소) 명명 반영의 건은 앞서 모바일 통화(2026.06.14. 까지 세종시장에게 문서 협의 예정)로 안내드린 것과 같이

명칭은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안으로 시설물 명칭 부여 절차에 따라 결정'

5. (to 의회·세종시장 5차 再 건의) ‘ 지명위원회 조
 례’ 소관부서가 토지정보과 이고, 고속도로는 도로과 소관인 바, ‘세종
 -포천 & 세종-청주고속도로 신설사업 실시설계도상 가칭 인공지명
 명명을 다음과 같이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懇請 합니
 다

----- 다 음 -----



1) 세종-포천고속도로 건설사업 실시설계도 가칭(2027년 준공 예정)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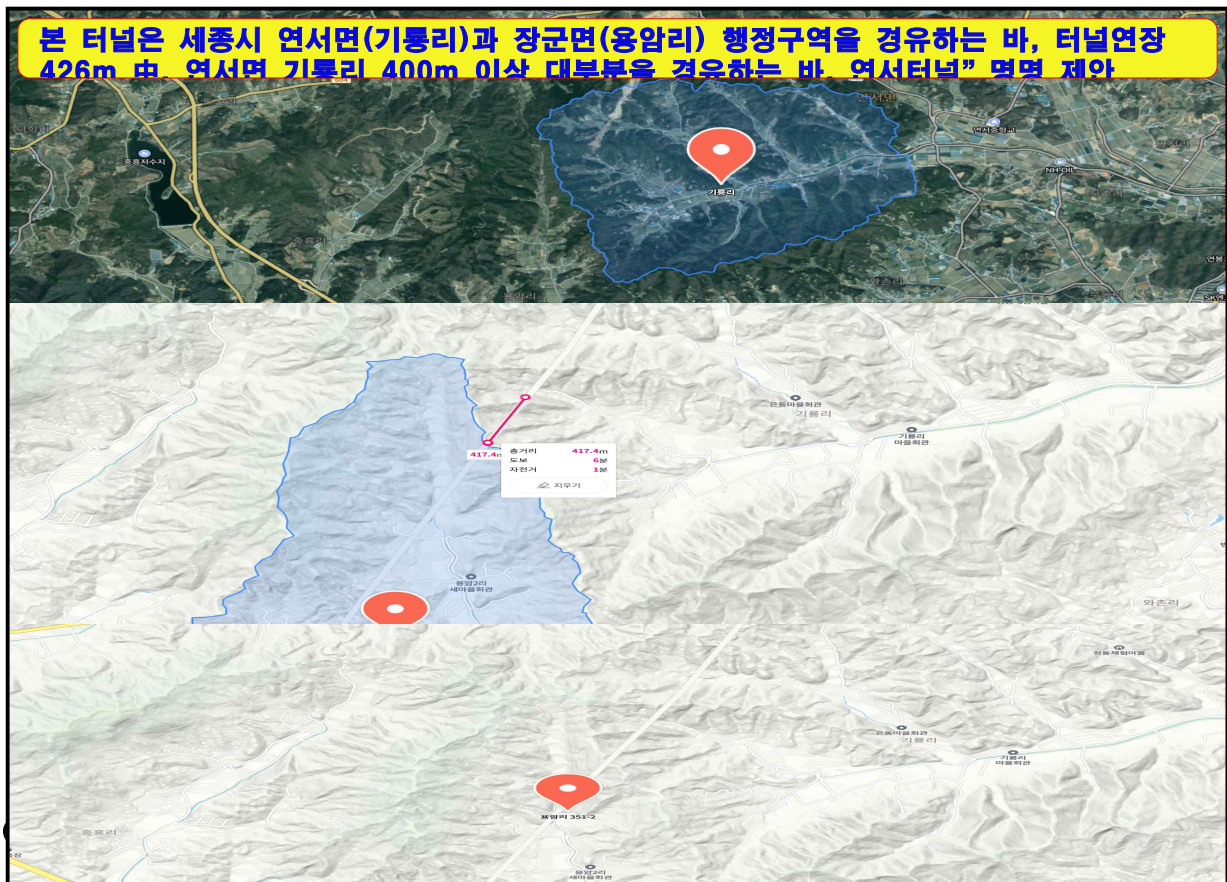
- 가칭 '오송지선' 연기분기점(JCT)·연기나들목(IC, 행정구역 전동면, 당초)
→ **전동분기점(JCT)·조치원나들목(IC)(변경)**
- 가칭 세종나들목(IC)(행정구역 장군면, 당초) → 세종나들목(IC) 유지
- 가칭 장군터널(행정구역 연서면, 당초) → **연서터널(변경)**
- 가칭 연기휴게소(행정구역 연서면, 당초) → **세종휴게소(변경)**
- 가칭 세종나들목(IC)(행정구역 장군면, 당초) → 세종나들목(IC) 유지

2) 세종-청주고속도로 건설사업 실시설계도 가칭(2033년 준공 예정) 변경

- 가칭 북세종나들목(IC)(행정구역 연서면) → 북세종나들목(IC) 유지
- 가칭 연서분기점(JCT)(행정구역 연서면) → 연서분기점(JCT) 유지

(참고자료)

1. 터널(설계도상, '가칭 장군터널') 지명 : 연서터널(案), 燕西 Tunnel(案) 명명



- 인공지명 터널 명칭을 ‘연서터널(案)’로 명명

2. 휴게소(설계도상 ‘가칭 연기휴게소’) 지명

- 근거 : ‘자연·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’
‘공공선 가치추구 세종시민연대’ 선호도 조사 등(세종시민 750명 참여)
- 인공지명 ‘휴게소 지명(案)’
 - (1案) 세종 휴게소
 - (2案) 고북호수 휴게소
 - (3案) 세종연서 휴게소
 - (4案) 조치원 복숭아 휴게소

가치추구 세종시민연대